

요약

서울시 소셜벤처 기술혁신·생태계 외연 넓히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하고 민관협력 확대해야

소셜벤처 외 사회적기업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잠재적 기업군 존재

2019년 소셜벤처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셜벤처의 80%는 제조업·정보통신업 등 기술 기반업종에 해당한다. 소셜벤처는 취약계층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지만 기술·인력·자본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만큼 혁신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 연구는 서울시 소셜벤처의 기술 혁신을 위해 기존의 소셜벤처 외 기술벤처와 사회적기업, 중소기업을 기술혁신형 소셜벤처의 잠재적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들이 기술을 중심으로 소셜벤처와 협업하거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기술혁신은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일반 벤처기업 모두에게 중요하지만, 경영전략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차이가 있다. 영리기업의 기술혁신이란 신기술을 활용해 제품의 기능과 성능을 향상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회적기업의 기술혁신은 신기술 적용 여부 보다 기존 기술을 활용해 제품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에 더 주안점을 둔다. 따라서 소셜벤처는 하이테크 또는 로우테크의 구분 없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기술이 필요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관한 연구는 Bowen(1953)에서 시작하였다. 이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비판이 존재하지만, CSR의 개념은 꾸준히 발전하여 오늘날에는 많은 기업이 경영원칙으로 도입하고 있다. CSR과 경영성과의 관련성에 관해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에 따르면, CSR은 장기적으로 경영성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CSR이 성장 초기 기업의 재무적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 없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사 결정을 수립할 때 성장단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울 소재 벤처기업 33% “CSR 반영해 기업 가치 증대·조직문화 개선 가능”

ii
용
약

소셜벤처의 확장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서울 소재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벤처기업의 CSR 인식을 조사하였다. 168개 벤처기업이 조사에 응답했다. 응답자 중 28.7%의 벤처기업이 CSR을 반영한 경영활동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절반이 비즈니스모델과 직접 연계되어 있다고 응답했다. 단,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은 소셜벤처보다 성과와 관리 측면에서 다소 부정적이었다. 벤처 또는 스타트업보다 중견·대기업이 CSR을 도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약 1/3의 응답자가 CSR로 기업가치를 증대(38.7%)시키거나 내부 조직문화를 개선(30.5%)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재무적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응답은 낮았지만(28.7%), 장기적 재무성과는 과반이 낙관적(긍정 51.2%)으로 전망했다. 이는 “기업의 CSR은 성장단계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한 천동필·우창원(202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소셜벤처 지원이 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지원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절반을 넘어(긍정 58.5%) 소셜벤처 지원에 벤처기업도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벤처기업은 자신들이 소셜벤처와 다르며(응답한 벤처기업의 26.2%가 “소셜벤처는 벤처기업과 같다”고 응답),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도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다.

‘중간기술 활용’ 기술혁신형 소셜벤처, 사업모델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유리

선행연구와 전문가 자문의견을 바탕으로 소셜벤처 기술혁신 유형 분석틀을 구축하고, 2019년 소셜벤처 실태조사 결과를 적용해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서울 소재 131개 소셜벤처(2019 소셜벤처 실태조사)와 실태조사에서 CSR 활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13개 벤처기업(2019 벤처기업 실태조사)이다. 크게 세 가지의 분석틀을 구축했는데, 첫 번째 분석틀은 사회적 문제해결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혁신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 분석틀은 소셜벤처가 적용하는 기술과 시화적·경제적 가치실현의 대상에 관한 것이다. 세 번째 분석틀은 소셜벤처가 실현하려고 하는 시장의 변화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 소셜벤처 기술혁신의 유형

사회적 문제해결 비즈니스 모델	기술혁신	의미
사회적 가치를 담은 제품/서비스를 제공	기술혁신(중간기술)	적정한 기술로 편리성·경제성 개선을 이뤄 전통적 시장에서 소외된 소비자(취약계층) 에게 재화·서비스를 제공
	기술혁신(신기술)	신기술을 활용해 편리성·경제성 개선을 이뤄 전통적 시장에서 소외된 소비자(취약계층) 에게 재화·서비스를 제공
	가치사슬 혁신	제품·서비스 생산과정의 가치사슬에 사회적 가치를 부여(고용촉진, 상품구매 등)
플랫폼 운영	정보격차 혁신	시장의 소비자·공급자 간 정보격차를 줄여 적극적 시장 참여가 어려운 참여자(취약계층) 의 경제활동을 위한 시장구조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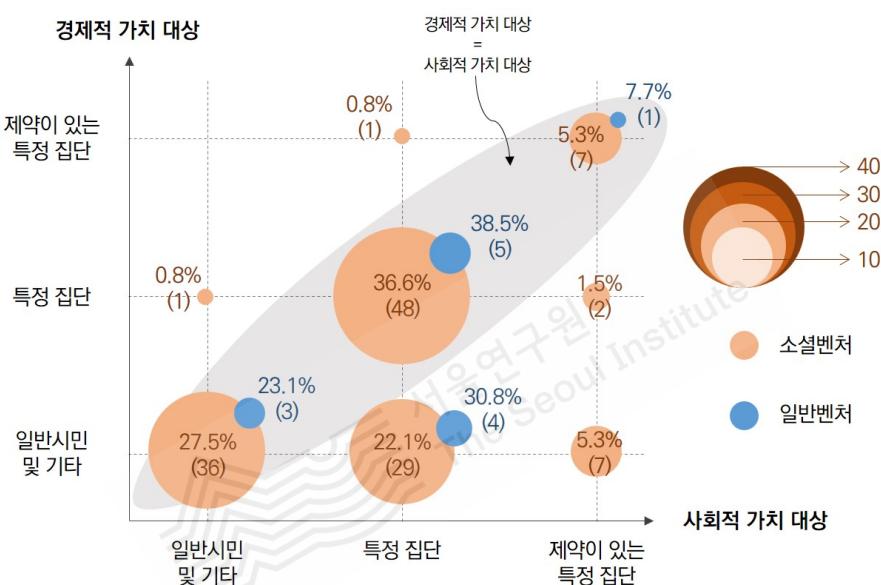
[표 2] 적용기술과 가치실현 대상 유형

구분 기준	유형
적용기술(3개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급기술(대학원 이상의 공학지식 요구) - 중간기술(대학 이상의 공학지식 요구) - 초급기술(일반인도 쉽게 습득 가능)
사회적·경제적 가치실현 대상(3개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소비자 - 특정 집단 - 제약이 있는 특정 집단(장애인, 중증 난치성 질환자 등)

[표 3] 소셜벤처가 가져온 시장의 변화

시장의 변화	의미
새로운 시장 창출	기존의 시장에서 제공하지 못한 재화·서비스
정보격차 해소 (시장 신뢰성 제고)	생산자 간 또는 소비자-생산자 간 불공정하게 형성된 시장의 정보를 개선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
시장 접근성 확대 (시장의 확대)	시장에 참여할 수 없었거나, 참여하지 않았던 소비자/생산자의 참여하고 유입될 수 있도록 유인
친환경 시장 형성	재화·서비스를 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거나 제공
착한소비	재화/서비스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소비자가 간접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소셜벤처 생태계 강화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투자-스케일업 생태계를 강화
사회서비스 제공	공공재적 성격을 지녀 시장에서 공급하지 못하는 재화·서비스를 제공
시장의 변화 없음	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음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응답자 중 기술혁신형 소셜벤처는 40개로 전체 응답자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중간기술의 비중이 가장 커다. 소셜벤처의 혁신 가운데 기술혁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30.5%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비중은 6.1%였다. 기술혁신형 소셜벤처는 대부분 대학 이상의 공학지식을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제조 등 중간기술을 활용하고 있었다. 둘째, 소셜·일반벤처의 사회적·경제적 대상이 일치하는 비중은 각각 69.4%, 69.3%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셜벤처는 사회적 가치 대상과 경제적 가치 대상을 두 축으로 [그림 1]과 같은 분포를 보인다.



[그림 1] 소셜벤처의 사회적·경제적 가치의 대상 맵핑

셋째, 중간기술을 활용하는 기술혁신형 소셜벤처는 사회적 가치 대상과 경제적 가치 대상이 일치하므로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다른 기업보다 유리하다. 소셜벤처는 제약이 있는 특정 집단을 사회적 가치의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일반 벤처기업에는 없는 가치사슬 혁신은 사회적 가치 대상과 경제적 가치 대상이 불일치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소셜벤처의 정보격차 혁신은 소셜벤처와 일반벤처가 모두 가능하며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특성상 사회적·경제적 가치 대상이 불일치해도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서울시 소셜벤처 기술혁신 분야인 에이블테크, 사회적 약자 지원하는 기술

서울시 소셜벤처의 기술혁신 분야인 에이블테크는 사회적 약자(장애인·노약자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모두 함께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하며, 네 가지 기술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서울시(소셜벤처허브)는 보조공학기기, IT 및 서비스, IT 분야를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에이블테크의 유형에 따른 소셜벤처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표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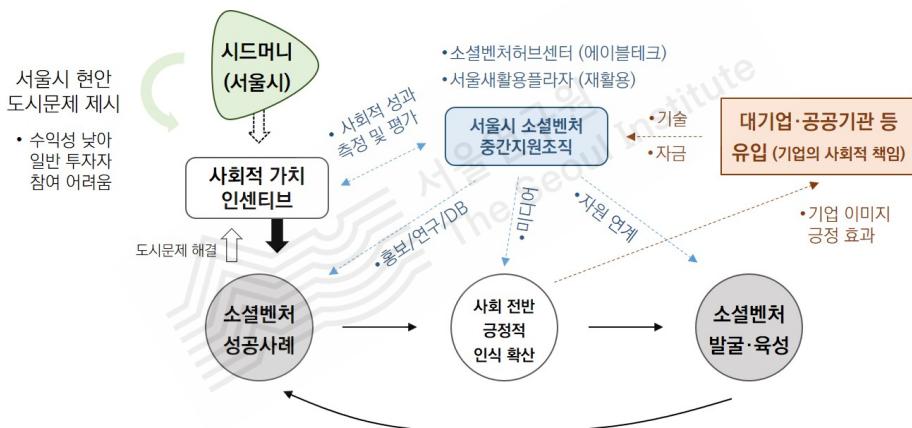
[표 4] 에이블테크 소셜벤처 유형

기술 유형	사회적 가치 대상	주요 사업내용
보조공학기기+IT (7)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점자 사용자를 위한 혁신적인 점자 필기도구 ·저시력을 위한 실시간 화면확대 공유서비스 ·시각장애인용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패드 ·점자교육 시스템 ·안경 형태 웨어러블 디바이스(시각정보의 음성전달) ·의족 각도 컨트롤 애플리케이션 ·전동휠체어 ·3D프린터 기반 전자의수 개발
서비스+IT (11)	·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교통약자 ·노약자 및 병약자	·청각장애인 운전기사 운행 차량 모빌리티 ·맞춤형 호출 모빌리티 서비스 ·인지능력 향상 교육서비스 ·저염식 등 맞춤형 식단 서비스 ·무장애 편의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스마트 링·밴드를 통한 수화의 음성변환 서비스 ·시각장애인용 도로 내비게이션 서비스 ·실시간 음성 문자통역서비스
헬스케어 (3)	·병약자 ·성인	·스마트 의약품 보관 서비스 (약병 등) ·분리구조 성인용 기저귀
유니버설디자인· 컨텐츠 (3)	·노약자·병약자 ·교통약자 ·취약계층	·저시력자도 볼 수 있는 서체 개발 ·교통약자 환승지도 등 콘텐츠 개발 ·시각장애인용 콘텐츠 개발 ·뇌졸증 재활치료 게임

CSR 강화해 소셜벤처 생태계 외연 넓히고 사회적 가치 인센티브 도입해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소셜벤처 확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한다. 첫째, 창업, 중소기업 등 서울시 기업지원정책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역할을 강화해

소셜벤처 생태계의 외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간기술을 주로 활용하는 소셜벤처는 에이블테크 같은 중간기술로 구현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공지능(AI)처럼 신기술을 요구하는 사회문제는 CSR을 확산해 신기술 벤처기업을 소셜벤처 생태계로 유인하여 소셜벤처 생태계를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서울시 주도의 사회적 가치 인센티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민간참여가 저조한 ‘기술적 도시문제’ 해결에 사회적 가치 인센티브를 도입해 기술벤처의 참여를 촉진하고, CSR 활동 의사가 있는 기업에 비즈니스 기회와 사회적 가치를 제시할 수 있다. 민간참여가 저조한 도시문제 분야는 시장경제(수익성 극대화) 기반 기업의 진·출입을 통한 생태계 육성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한 다음 성과목표 달성을 시 공공이 예산을 집행해 투자자에게 이자와 함께 상환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이나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등 ‘사회적 가치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여기서 서울시는 시드(seed) 투자자 역할을 한다.



[그림 2] 서울시 도시문제 분야 기술기반 소셜벤처 확산모형

셋째, 공공과 민간의 자원을 연계·확산해 소셜벤처 기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소셜벤처의 정책목표는 소셜벤처의 수적 확대가 아닌 소셜벤처 생태계의 문화 확산이 되어야 한다. 주요 역할은 사회적 성과·측정 평가, 임팩트리포트 발간, 성공사례 아카이빙, 미디어홍보, 자원연계 등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소셜벤처 생태계에 연계되지 않은 자원(대기업 등)을 유인·연결해 생태계 내 소셜벤처 발굴·육성을 위한 선순환 고리를 이루는 정책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